

## 주요 방산수출국가 수출지원제도 관련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 장원준 부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I. 출장 개요

- 출장자: 방위산업팀 부연구위원 장원준
- 기간: 2012년 9월 1일(토)~9월 9일(일)
- 지역: 노르웨이(오슬로), 스웨덴(스톡홀름), 네덜란드(헤이그), 프랑스(파리)
- 목적: 주요 방산수출국가 수출지원제도 관련기관 방문 및 자료 수집
- 일정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9.1(토)	Incheon	노르웨이(오슬로)	이동-도착
9.3(월)	-	오슬로	절충교역 및 방산전문가 인터뷰
	오슬로	스톡홀름	이동(오슬로→스톡홀름)
9.4(화)		스톡홀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방문/자료수집
	스톡홀름	헤이그	이동(스톡홀름→헤이그)
9.5(수)	-	헤이그	네덜란드 재정경제부 절충교역실 방문/자료수집
9.6(목)	헤이그	파리	이동(헤이그→파리)
		파리	Societe General 은행 방산금융수출팀장 방문
9.7(금)	파리		방산수출금융공사(Coface) 전문가 인터뷰
9.8(토) ~9.9(일)		Incheon (서울)	복귀

## II. 출장 내역

### 1. 9/β(월) 오전 : 노르웨이 절충교역 및 방산전문가 방문

#### □ 노르웨이 절충교역 및 방산전문가(Mr. Wezemann) 토의

○ 노르웨이에서는 국방성 산하 재정관리실(Department of Finance and Management)에서 절충교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은 1999년에 제정된 절충교역지침서를 활용하고 있음.

\* Norwegian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Offset Agreements in connection with Defense Procurement from Foreign Suppliers, June 1999.

- 절충교역 수행 목적은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에 중점을 두고 최근 이를 강조하고 절충교역 지침서를 개정함

- 특히, 산업협력에는 국방, 보안(security)뿐만 아니라 민군겸용기술 프로그램(dual-use program)까지 포함함.

○ 특징적인 점으로, 획득사업간 충분한 절충교역 가치제공 및 사전판단을 위해 사전 절충교역 제도(Pre-Offset)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지난 KIET 이슈페이퍼(방산절충교역)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사전 절충교역 제도 시행을 통해 시간적 측면에서 절충교역의 협상력(buying power)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스왑(swap) 제도를 통해 타국가와의 무기 거래시 절충교역을 서로 상쇄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노르웨이 절충교역은 획득사업 규모가 5,000만 크로네(NOK, 부가세 제외) 이상시 절충교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의 최소 100% 이상을 반대급부로 요구함.

○ 절충교역(산업협력)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함.

\* Category I : 전략적 주요사업(Strategic projects)

- \* Category II : 국방관련 사업(Non-Strategic, defense related projects)
- \* Category III : 보안 및 민군겸용 사업(Security related projects and dual use projects)
- 상기 3가지 유형에 대하여 Category I은 최소한 50%, Category III은 최대한 25%까지로 제한함.

- 절충교역(산업협력)의 세부 포함가능한 대상으로는 기술이전(공동협력), 방산시장 개척 및 접근관련 지원, 공동연구개발, 자국 제품 수출물량 제공, 자국 파트너에 대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 제공, 직접투자 등임.
- 특히, 노르웨이가 선호하는 우선순위 핵심기술은 IT 기술, 체계종합 기술, 미사일 및 센서 기술, 수중 및 센서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추진체, 탄약 및 폭발기술, 소재 및 해양기술 등임.
- 가치승수(multiplier)는 기술이전(공동협력)의 경우 최대 5배, 방산시장 개척 및 접근관련 지원은 최대 2배, 공동연구개발 최대 5배, 자국 제품 수출물량 제공 1배, 자국 파트너에 대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 제공은 최대 2.5배, 직접투자는 최대 5배로 규정하여 해외업체의 자발적인 기술이전 및 부품생산물량 제공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 9.4(화) 오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방문

### □ 스웨덴 SIPRI(Dr. Samuel Perlo-Freeman 외 3명) 토의

- SIPRI는 1955년에 창설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위산업 관련 국제연구기관으로서 매년 글로벌 방위산업 연감(SIPRI Year Book) 등을 발간하여 방위산업 관련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방산 Think Tank임.

\* 매년 발간하는 SIPRI Year Book에서는 세계 150여개국의 국방예산, 생산, 수출, M&A 등 글로벌 방위산업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포함하고 있음.

- 특징적인 점으로, 향후 SIPRI에서 발간하는 방위산업 연감(SIPRI Year Book)에 산업연구원(KIET)을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기관에 포함

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음.

- \* 매년 상호간 연구원 상호방문 및 세미나 실시, 필요시 관련자료 제공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

[그림 1]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홈페이지



○ 아울러, SIPRI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글로벌 100대 방산업체 현황’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국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방사청의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3~17)”의 주요목표 중 하나인 ‘2017년까지 글로벌 방산업체 10개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2012년 현재 글로벌 100대 방산업체에 삼성테크윈(60위, 매출액 12.9억 달러)와 LIG 넥스원(79위, 8.1억 달러) 단 2개 업체만 포함되어 있으나, KIET가 수행한 2011 방산통계조사에는 두산 DST(70위권, 8.8억 달러), KAI(90위권, 7억 달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

○ KIET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산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연구결과를 SIPRI가 필요시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9.5(수) 오후: 네덜란드 재정경제부 절충교역실(Director Leen De Jong, Mr. Heemskerck) 방문

## □ 네덜란드 방위산업 현황

○ 네덜란드 방위산업 및 안보(Security) 분야 총 생산은 31억 유로 규모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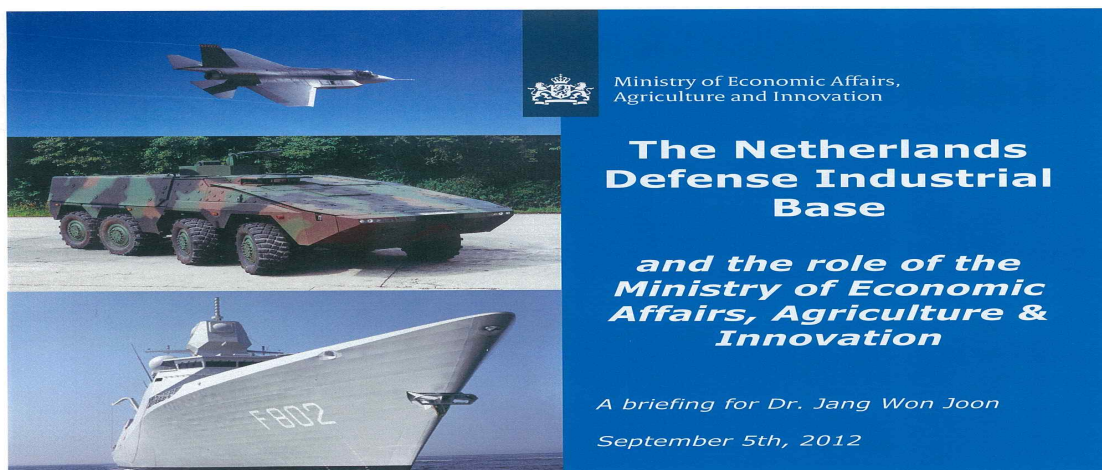
- 방산업체는 약 450개이며 고용인력은 14,000여명, 수출은 21.8억 유로 (총 생산의 70%)를 차지함.
- 방산업체는 주로 중소기업(SME)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방산업체로는 Fokker, Thales, Imtech, DSNS, Merwede 등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 방산인력의 32%가 연구개발 분야이며, TNO, NLR, MARIN, TU's 등의 방산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 네덜란드 절충교역(산업협력) 현황

○ 네덜란드에서는 국방부와 협조하 재정경제부 절충교역실(CMP)에서 절충교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통칭하고 있음.

- 절충교역 수행 목적은 국내외 방산시장에서 자국 산업과 연구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산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및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절충교역(산업협력)은 국제협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Cooperative Program) 수행 및 중소기업 육성에 우선순위가 높음.

[그림 2] 네덜란드 절충교역실 제공 발표자료



- 네덜란드 절충교역은 획득사업 규모가 500만 유로 이상시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의 60~100%를 반대급부로 요구함.
- 특징적인 점으로, 해외업체의 벤처캐피탈(VC) 제공 유인을 위해 최대 가치승수의 10배까지 제공하여 자국 산업협력 및 고용 창출에 노력한다는 점임.
  - 이는 지난 KIET 이슈페이퍼(방산절충교역)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사전 절충교역 제도 시행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는 점으로서 향후 국내 관련제도 도입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자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판매 지원(MSS, Marketing and Sales Support)와 마케팅 지원(Marketing Assistance)를 절충교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임.
- 네덜란드는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민수 및 군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갑차(Boxer), 헬기(NH-90) 성능개량 및 스텔스기(JSF-35) 공동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절충교역 수행의 모범국가임.

#### 4. 9.6(목) 오후: 프랑스 Societe General 방산수출금융팀(Mr. Eric Allain des Beauvais 외 1명) 방문

##### □ 프랑스 방산수출지원제도

- 프랑스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국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방산수출금융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보증 수출금융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sup>1)</sup>

1) 금융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프랑스 보험법 432-1조 ~ 432-4조이다. 이를 통해 Coface의 창설과 수출금융 대행 및 회계 관련 내용들이 정의되며, 자사의 일반보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기록을 하고 국가가 임명한 특수회계 감사위원의 감독 및 공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97~98년 예산법 (Loi de Finances 1997-1998)으로, 국가는 Coface에 압류금지 계좌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2005년 10월, 수출진흥조치 Cap Export 실시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정부허가 수출계약에 대해 기존의 수출금융을 보강한 담보 신용·연불신용 보험이 신설되었음.

○ 금융지원을 주도하는 기관은 재경부와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이며, 재경부는 수출보험 관장 정부부처로서, 재경부 주도 하에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 前 프랑스 수출보험공사)가 정부 대행 체제로 실질적인 업무를 관리함.

- 감독기관인 재경부는 매년 정부보증 수출금융에 적용되는 보장 범위를 결정하며, 정부보증은 수출신용보증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경부 경제정책/이재국장(DGTPE) 및 국제협력국장(DRI)이 결정함.

- 재경부는 정부 수출전문 홈페이지에 세계 지역별 수출신용등급을 표시한 지도를 매년 게재, 홍보하고 있음.

#### 5. 9.7(금) 오후: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 전문가(Mr. Radone) 인터뷰

○ 프랑스는 1948년 보험법을 제정, 국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 전담 기구로서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는 세계 1위의 수출신용보험회사 및 세계 최대의 신용정보회사로서 세계 99개국에 지사 또는 Credit Alliance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수출보증관리기구임.

- Coface는 비영리 정책보험기관으로서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보험 업무를 전담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수출보험 공사인 Coface부터 일반 상업은행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방산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수출 진흥책의 일환으로 2005년에 신설된 담보·연불수출금융 보증은 수출업체에 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떠맡게 되는 위험부담을 보장하는 보험임.

- 담보·연불수출금융 보증은 중장기 수출지원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수출계약 체결 후 제작기간 동안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융이 필요한 업체와 금융제공 은행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 은행은 수출업체에 제공한 융자액을 근거로 계산된 보험료를 Coface에



지불하고 은행이 수출업체에 동의한 용자금의 미상환 위험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음. 즉, 은행 손해를 70%까지 배상받게 해 줌으로써 수출업체들의 파산 위험에 대한 보증을 확보할 수 있음.

○ Coface는 OECD 협정, 대외무역 관련 외국 기관의 부패방지에 대한 법률(2000. 6. 20)과 외국자본 및 환경과급 영향 관련 규정 등을 법적근거로 하여 수출 건을 확인하고 동 수출 건에 내포된 위험지수를 평가하고 있음.

- Coface가 보험청약건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고 나면, 건 별로 수락된 보증약속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Coface 자체 위원회(정부 대행차원에서)나 재경부 DGTPF 주재의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신용보증위원회<sup>2)</sup>에 제출한 다음, 위원회에서 보증 성립 여부가 결정됨.

- 수출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Coface는 대상국, 사업유형(특히 항공분야(GPIA)의 BTP(생산자 보증)에 따라 그리고 재정 montage의 성격에 따라 수입자 신용보증, 생산자 신용보증, 프로젝트 금융보증, 은행전용 보증 등 보증 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피보험자들에게 최상의 금융지원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때, 담보권 보증을 위해서 추가보증이 성립될 수 있음.

○ 일반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연불수출금융지원은 크게 구매자신용 대출방식과 공급자신용 대출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함.

- 구매자 신용 대출방식은, 방산수출의 실계약자는 수출자와 수입자이지만 금융주간사가 수입자의 예산부처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Coface가 보험해주는 형태임.

- 금융주간사는 Coface가 대금상환에 대한 보험을 보장하고 수입국의 예산부처가 대금을 직접상환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적음. 이와 반대로 공급자 신용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이 불안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보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함.

- 수출자는 다시 수입자와 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입자에게 대출하고 이 금융계약에 대해 Coface가 부보해 줌.

○ Coface는 생산위험과 신용위험과 같은 2가지의 보장 위험도 운영하며, 생산 위험은 수출계약 파기 위험으로서 수출계약 서명에서부

2) Commission des Garanties et du Credit au Commerce Exterieur

터 계약이행 완료 전까지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대상으로 함.

- 신용 위험은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으로 계약이행 완료부터 해외 수입자의 최종 지불 사이에 발생 가능한 위험임. 피보험자는 비상위험(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위험)이나 상업위험(상업적인 이유로 인한 위험) 중 각각 1개만 청약하거나 2개를 동시에 함께 청약할 수 있음.
- 보장의 범위는 위험발생 사유와 보험증권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생산 위험은 계약이행이 6개월 동안 중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손실 보장 범위는 비상위험에 의한 경우 95%까지, 개인 구매자의 지급불능에 의한 경우 90%까지 보장함.
- 신용위험은 채무를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감안하는데 수입자 신용보증의 경우 95%까지, 비상위험에 의한 생산자 신용보증의 경우 90%까지, 신용위험에 의한 생산자 신용보증의 경우 85%까지(만약 신용장이 은행보증이 있을 경우는 90%까지 보장될 수 있음) 보장하고 있음.